

お名前 () さん

발버둥 치는 새끼 늑대의 모습이 마치 분유를 더 달라며 조르는 듯이

보입니다.

아이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늑대는 아직도 백두산 등지에

소수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맹수입니다.